

학술단신

‘호과 緣起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중림스님)는 ‘공(空)과 연기(緣起)의 현대적 조명’ 제 1차 학술세미나를 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는 △불교와 마음의 진화(윤혜린·이화여대) △상호적 인과로서의 연기(박소정·이화여대) 등이 발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같은 주제로 올 한해 동안 5차례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비 지원 공모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8년도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연구 논문과 운동모임을 공모한다.

연구논문은 불교학과 그 관련 분야로, 지원자격은 박사 학위 소지자 및 전문강원의 강수 이상이며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총 3백만원. 또 운동회는 선어록 및 불교 원전을 감독하는 5명 이상의 운동회로 5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각 1백만원.

한편, 연구원 신임운영위원으로 원영스님(동국대 강사), 은정희(서울교대) 최일범(성균관대) 조성택(뉴욕 주립대) 교수 등을 위촉했다. (02)265-5215

지눌스님의 정혜결사 정신 현대사회 병폐 치유책

김방통씨 논문발표

보조조사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의 이념과 사상을 수심(修心)과 융화(融會), 이타자비(利他慈悲)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사회 병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방통(원광대 동양종교학과)씨는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한국종교> 제22집에 발표한 ‘지눌의 정혜결사 이념과 성격’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자비를 실천한다면 이데올로기의 대립, 지역감정, 학연과 지연에 의한 분열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교의 갈등 등으로 당시 고려불교의 타락된 현실을 직시한 지눌은 정혜결사운동을 통해 불교계 내외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의례는 신앙과 사상 결집체”

한국종교학회 9일 ‘종교와 의례’ 세미나

종교에 있어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에 대해 각 종교별로 연구한 학술발표회가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 주최로 9일 오전 10시 서울대 인문관에서 열린다.

“종교와 의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의 발표분과로는 △한국불교 의식문제에 보이는 화엄신앙과 사상-대웅전 예경문을 중심으로(해주스님·동국대) △밀교의례의 수행관(정성준·동국대 강사)이 발표된다.

교계 처음으로 한국불교 의식문에 담겨있는 화엄신앙과 사상을 대웅전 예경문을 통해 고찰한 해주스님은 미리 배포된 논문에서 “종교에 있어 의례는 그 종교의 신앙과 사상을 수목된 각 단의 명칭을 통해서 종교를 유포시키고 교단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석문의범(釋門儀範)>에 의거, 대웅전 예경문에 녹아있는 화엄신앙과 사상을 분석한 해주스님은 <석문의범> “예경편” 고찰을 통해 “예경문에 나타난 화엄신앙과 사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신앙해왔던 불보살과 신중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석가모니불·아미타불·미륵불·약사여래불을 주로 모시며 화엄법계를 상징하는 제왕할래의 일체 삼보로



— 해주스님 —

“한국불교 의식문 화엄사상 바탕둔 통불교적 성격”



— 정성준씨 —

정도신앙 실천법 밀교관법 수행에 직접적 영향

믿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일체 삼보를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세계에 상주하시는 삼보로 일컬고 있으며, 제왕할래도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를 드러내주는 말이

라는 것. 또 대웅전 예경문의 오분향례(五分香禮) 향수해례(香水海禮) 소례참례(小禮讚禮) 대례참례(大禮讚禮) 등에 나타난 화엄신앙과 사상의 측면도 연구했다.

특히 오분향례의 경우, 처음 오

분향을 올리는 내용에서부터 화엄사상이 짙게 깔려있어 “화엄법계에 두루한 오분향을 시방에 계시는 삼보에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주스님은 “<석문의범>에 실린 전통적 오분향례는 정화이후 칠정례로 바뀌기 전보다 화엄적 측면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며 “우리나라에 화엄이 정래된 신라 이후, 화엄은 불교의 식에 있어서도 매우 주요한 부분을

김정은 기자

“화엄일승사상 고찰 탄허스님 업적 계승”

내년 5월 국제 학술세미나 준비 원행스님

“화엄사상이 인류화합의 사상이자 미래문화를 열어줄 수 있는 선구적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되는 ‘오대산 화엄사상과 탄허대선사’ 국제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원행스님(동해 삼화사 주지)은 4월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대산에 주석하며 21세기를 창조해가는 사상은 화엄의 일승사상과 삼성원용사상임을 설파하신 탄허스님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한국

의 오대산과 중국의 오대산이 화

엄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같은 불교문화를 형성했음을 조명하고 ‘오대산’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미나 준비를 위해 4월27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화엄학연구소 소장 코지마다이잔(小嶋大正)씨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오대산 화엄사상과 탄허대선사’ 세미나는 △21세기와 화엄사상 △동양사상과 화엄사상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와 한국 오대산 불교문화와 탄허대선사와 화엄사상 등을 고찰한다는 계획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학자들이 대



거 초청된다.

원행스님은 “물질만능주의와 환경오염, 경제위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촌에 대한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은 ‘화엄사상’ 뿐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광법사는 김대문의 종중조부”

명성스님 주장

화랑 세속오계를 지은 원광법사가 화랑세기를 저술한 김대문의 종중조부이자 승려나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성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은 경산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산문화연구> 제2집에 게재된 ‘원광

법사와 운문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광스님은 진골귀족으로서 어린 나이에 경주 황룡사로 출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광스님의 성씨가 박, 설, 김 씨의 3성으로 문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 외조부 등의 성씨도 계승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명성스님은 “중국문헌인 <속고승전>과 우리 문헌인 <해동고승전>(<고분수이전> <삼국유사> <화랑세기> 등에 원광법사의 성씨와 가계, 출가년도와 장소, 입적한 연도 등이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면서 “원광법사는 중국 유학에서 귀국하여 운문사를 처음으로 중창한 뒤 인근의 가솔갑사로 옮겨가 귀산과 추항에게 화랑의 실천규범인 세속오계를 가르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처의 죽음’ 등 7개 사이트 미국불교계 호스피스

‘부처의 죽음’ 등 7개 사이트 암·에이즈환자 등 봉사 활동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한국불교계가 장묘·영가천도 등으로 인간의 죽음에 다가선 반면 미국불교계는 편안한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Hospice)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미국불교계 호스피스는 총 7곳. 이중 △부처의 죽음(Belly of the Buddha-The Buddhist AIDS Network)과 △선(禪) 호스피스(The Zen Hospice Project)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禪) 호스피스’는 불교적인 관점과 방편으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트. ‘선 호스피스’는 샌프란시스코 불교계가 1987년 호스피스 사업을 전개하면서 만든 비영리 법인으로 자원봉사자 훈련, 유관 단체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계적인 호스피스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문헌정보’에는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뉴스레터 ‘패러다임(Paradigms Magazine)’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환자들의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부처의 죽음’도 미국 불교인들의 에이즈에 관련한 봉사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에 대한 봉사활동과 환자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전문에 기반을 둔 불자와 불교단체들이 에이즈 예방과 치료, 환자들에 대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HIV와 에이즈에 관련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능하며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우리의 호스피스 활동은 일상의 수행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뉴욕에서 에이즈 환자를 구호하는 △The White Plum Buddhist AIDS Network, 로스앤젤레스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The Buddhist Aids Project, 뉴욕에 거주하는 에이즈 환자에게 주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Greyson Health Services, 메릴랜드의 남파파 티벳사원에서 살고있는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의 수행·치료를 소개하는 △Kunzang Palyul Choling 등이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elly of the Buddha-The Buddhist AIDS Network http://www.itp.isoa.nyu.edu/~fauly/pato/

△The Zen Hospice Project http://www.well.com/user/devarja/

Advertisement for 'Paramita Books' featuring the book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If you point at the moon, you must see the moon. Why are you looking at the tip of your finger?).

Advertisement for '歷代宗正法語集' (A collection of Buddhist teachings from past masters) by Kim Gyeong-hui, featuring a book cove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석가의 본심' (The true heart of the Buddha) and '밀교강좌' (Esoteric Buddhism Lecture) by Kim Gyeong-hui, featuring a portrait of a Buddha and promotional text.